

코로나 확산세에...질병청, 방역 완화 계획 연기

코로나 신규확진 6주 연속 증가세 독감 유행 등 호흡기 질환도 비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코로나19 확산세에다 독감과 여름 감기 바이러스까지 유행하는 등 호흡기 질환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 증가세 등을 고려해 감염병 4급 전환 등을 담은 방역 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7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매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방문한 호흡기 환자의 원인 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파라인플루엔자 검출률은 7월 3주차 29.2%, 4주차에는 24.6%를 차지했다.

파라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4~8월에 유행하는 여름감기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19 대확산 기간에 잠시 자취를 감췄다가 2021년 9월 유행이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10월부터 검출되는 등 기존 발생 양상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7월에도 다시 크게 유행해 호흡기 바이러스 발생 경향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감시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건환경 연구원은 전했다.

서정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은 "올여름은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 파라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병원체 검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출 전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도 6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388명이다. 이는 직전주(4만 5524명)보다 10.7% 늘어난 것으로, 6주째 증가세다.

이달 1~7일 일별 신규 확진자는 5만6099명→6만4155명→5만5460명→5만4729명→5만3119명→4만8899명→2만255명으로, 지난 2일 6만명선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10일(6만199명) 이후 7개월 만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간 확진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완만해졌다"며 "전주대비 증가율은 28주차 22%, 29주차 34%, 30주차 21%를 기록했지만 31주차(지난 주)에는 10%가량으로(증가세의) 기울기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짐에 따라 일단 이번 주로 예정했던 방역 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하

기로 했다.

질병청은 이날 "이번주 수요일 브리핑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를 포함해 코로나19의(감염병 등급) 4급 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연기한다"면서 "중증화율,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관련 현안 대응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행, 방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 후 조정 계획을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를 자부담 원칙(위중증 환자 제외)으로 변경하는 한편, 확진자에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당초 해제를 고려하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4급 전환 계획 발표를 연기하면서 방역완화책의 시행 시점이 이달 말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차단봉에 몸을 기대고 있다. /연합뉴스

영·호남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탄력 받는다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 의원 257명 역대 최다...에타 면제 조항이 핵심

영·호남을 잇는 달빛(달구벌·빛고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특별법이 역대 최다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하는 법률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 추진을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국회의원 257명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현정사상 공동발의 의원이 200명이 넘는 사례는

총 7번 있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225명의 의원이 참여해 역대 가장 많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공식 발의되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하는 사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법안은 광주, 대구를 비롯한 전남·북, 경남·북 영호남 지자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핵심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함께 힘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개정안이 아닌 제정 법률이어서 입법 공정회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만, 훈증표대

구시장과 이번 국회 또는 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건지 논의한 끝에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성 등에 대해선 "호남선 KTX도 경제성만 따지고 건설하지 않았다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을 것"이라며 "특히 교통 인프라 등의 경우 서부경남 KTX처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사례도 많은 만큼 국회의 힘을 모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수·바다·숲 어우러진 남도 숲길 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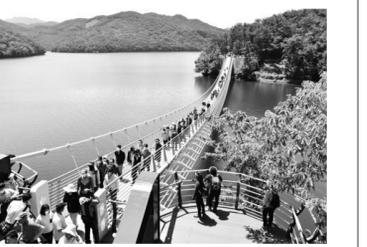
전남도, 장성호 등 '여름철 걷고 싶은 숲길' 5곳 선정

전남도가 울창한 숲과 함께 시원한 수변이 어우러진 '여름철 걷고 싶은 숲길'로 장성호 명품 숲길 등 5곳을 선정해 추천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여름철 걷고 싶은 숲길'을 주제로 시·군 공모를 통해 14개소를 접수, 경관·산림·등산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회를 통해 명품 숲길을 선정했다. 최우수 숲길에는 장성호 명품 숲길이 선정됐다. 우수 숲길에는 진도 남방산웰빙 숲길, 무안 물맞이 치유숲길, 완도 약산 해안 치유숲길, 목포 양산산 산림욕장 숲길 4곳이 뽑혔다.

장성호 명품 숲길(12.5km)은 수변을 따라 조성된 데크길을 지나 황금대나무 숲길로 이어진다. 사계절 모두 걷고 싶은 숲길이지만 여름철 그 청량감이 한층 더 풍긴다. 특히 산책 중간 중간이 넘치는 열매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무더위를 날리는 데 제격이다. 주말 평균 방문객만 1만여명이 넘는다.

진도 남방산 웰빙 숲길은 다도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빼어난 풍광을 갖췄다. 백사장과 기업전벽 등으로 구성된 다른 숲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무안 물맞이 치유숲길과 완도 약산 해안 치유숲길은 치유의 숲을 활용해 조성한 숲길로 출발점인 치유센터에서 명상, 요가, 족욕 및 풍욕, 노르



장성호 출렁다리

딕 워킹 등 다양한 산림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목포 양산산 수변 숲길은 도심에 조성된 숲길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졌고, 주변에는 산림욕장과 유아놀이 구역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전남도는 '걷고 싶은 숲길'을 올해 계절별 5곳씩, 총 20개소를 발굴해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숲길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산행환경 제공을 위해 노면 정비와 풀베기 등 숲길(4223km)에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름다운 숲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서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개최

9~14일 초·중 436명 5개 종목 열전...지역문화 탐방도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가 3년 만에 광주에서 재개된다.

광주시는 "대한체육회 주최 '제27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9일부터 14일까지 광주 도심 경기장 6곳에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초·중학생 각각 218명씩 총

43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교류대회는 1997년부터 양국 청소년에게 스포츠 교류를 통해 국제경기 경험을 넓혀주고, 양국의 스포츠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대회는 취소됐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별로 대회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이번 제27회 대회 개최지는 대한체육회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올해 대회는 축구·족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이 치러지며, 오는 10일 일본 선수단과 양국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환영연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류전에 참가하는 일본 선수단은 대회 기간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광주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의 시간 등도 가질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홀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평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07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7월 26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8일
주식회사 에스이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8층 (유동, 제1스타워)
청산인 서기호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3년 8월 1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1,500,000,000원을 금1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49,00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150,000주를 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 바,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아울러 구주권을 제출(구주권을 제출하는 위 같은 기간 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3년 8월 8일
주식회사 대천산업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81-1 103호 (지산동)
대표이사 류진영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당사는 2023년 7월 24일 주주총회의에 따라 자본감소(주당 지급하는 금액 10,000원, 15,000주를 소각하여 소각후 주식수 15,000주, 소각신청주식수가 소각예정주식수를 초과한 경우 소각신청 주식수에 비례하여 취득 및 소각을 진행함)를 결의하였기에 본 공고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는 주권을 제출(주식양도신청)해주시고, 본 결의(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필요한 이의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8일
농협회사법인 미소속신용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개공로길 123-2, 제2동 (연산동)
사내이사 진성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정호(641204-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서당골길 29(서동)

피상속인 망 박정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단674호로 신청하여 2023년 7월 3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8일

- 상속인 : 박소민(990818-XXXXXX)
- 광주 동구 천변로 361-15, 820호 (수기동,아트시티 리버파크모아아파트)
- 신고기간 : 2023. 8. 8. ~ 2023. 10. 1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소민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상호(69120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서동로 14(서동)

피상속인 망 박상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단673호로 신청하여 2023년 7월 3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8일

- 상속인 : 박명숙(390303-XXXXXX)
- 광주 동구 천변로 361-15, 820호 (수기동,아트시티 리버파크모아아파트)
- 신고기간 : 2023. 8. 8. ~ 2023. 10. 1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명숙의 주소

사찰 (급) 안내

- 위 치: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 지: 약 1,700평
- 가 액: 9억

- 약사여래불 6m 있습니다.
- 대웅전 1동 삼상각 1동
- 108 돌탑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답사 후 절중가능

문의 033-562-0448
휴대폰 010-3832-4317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정호(650804-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양방울대로 611-66, 104동 101호(도천동, 윤솔의아침 수원5차 더 시그니제)

피상속인 망 박정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단3772호로 신청하여 2023년 8월 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8일

- 상속인 : 오수연(60215-XXXXXX)
- 광주 광산구 양방울대로 611-66, 104동 101호(도천동, 윤솔의아침 수원5차 더 시그니제)
- 신고기간 : 2023. 8. 8. ~ 2023. 10. 1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오수연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양권(571220-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우산로 107번길 67, 110동 1402호(우산동, 쌍용플래티늄명산)

피상속인 망 김양권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단3783호로 신청하여 2023년 8월 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8일

- 상속인 : 1. 김현미(620320-XXXXXX) 서울 중대문구 휘경로 60, 105동 1103호 (휘경동, 휘경에스케이아)
- 2. 김현희(661120-XXXXXX)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114번길 19, 103동 1903호(금호동, 진흥마을파크)
- 신고기간 : 2023. 8. 8. ~ 2023. 10. 18.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2. 김현희의 주소

71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촌 266-1960
	• 북광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지 266-7801
	• 용동 433-1503	• 무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장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북신 673-6836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 369-1625	• 문천 376-7153
	• 치평 376-6511	• 문흥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문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신 944-0444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